

省心篇.下

眞宗皇帝御製曰，知危識險，終無羅網之門，舉善薦賢，自有安身之路，施恩布德，乃世代之榮昌，懷妬報冤，與子孫之爲患，損人利己，終無顯達雲仍，損衆成家，豈有長久富貴，改名異體，皆因巧語而生，禍起傷身，皆是不仁之召。

진종 황제 어제(御製)에 이르기를, 위험을 깨닫고 알면 끝내 그물을 벌여 놓은 문이 없을 것이며, 선한이와 어진이를 천거(薦舉)하면 자신을 편하게 하는 길을 스스로 갖게 될 것이로다. 은덕을 베풀면 이내 세대(世代)의 영화와 번창이 될 것이로되, 투기를 품거나 원통함을 갚으면 자손에게 근심거리를 주는 것이로다. 남에게 손해를 주고 자기만 이롭게 하면 마침내 현달할 자손이 없을 것이요, 남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집안을 이루면 어찌 장구한 부귀가 있으리오? 이름을 바꾸고 몸을 달리하는 것은 모두가 교묘한 말에 인하여 생긴 것이요, 화가 일어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어질지 못함이 부르는 것이니라.

神宗皇帝御製，遠非道之財，戒過度之酒，居必擇隣，交必擇友，嫉妬勿起於心，讒言勿宣於口，骨肉貧者莫疎，他人富者莫厚，克己以勤儉爲先，愛衆以謙和爲首，常思已往之非，每念未來之咎，若依朕之斯言，治家國而可久。

신종 황제 어제에 이르기를, 도(道)가 아닌 재물을 멀리 하고, 도(度)를 지나친 술을 경계하라. 거함에는 반드시 이웃을 가리고, 사귄데는 반드시 벗을 가려야 할 것이다. 질투를 마음에 일으키지 말며, 참언(남을 근거없이 헐뜯는 말)을 입에 뱉지 말 것이다. 골육빈자(가난한 일가)를 소원하게 대하지 말고, 부유한 남을 후하게 대하지도 말 것이다. 극기는 근검으로서 우선으로 삼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겸손과 화합으로서 첫째로 삼아야 하느니라. 항상 이미 지나간 날의 그릇됨을 생각하고, 매번 앞날의 허물을 생각할지니라. 만약 짐(朕)의 이 말을 믿고 의지한다면 집안이나 나라를 다스림에 장구(長久)할 수 있느니라.

高宗皇帝御製，一星之火，能燒萬頃之薪，半句非言，誤損平生之德。身被一縷，常思織女之勞，日食三飧，每念農夫之苦。苟貪妬損，終無十載安康，積善存仁，必有榮華後裔。福緣善慶，多因積行而生，入聖超凡，盡是眞實而得。

고종 황제의 어제에 이르기를, 하나의 별똥별만한 작은 불꽃이라도 능히 수백만 이량의 땔나무를 태워버릴 수도 있고, 한마디가 채 안되는 반 구절의 짧은 그릇된 말이라도 평생의 덕을 잘못 손상시킬

수 있느니라. 몸에 한 오라기의 실을 입어도 항상 베짜는 여자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끼의 밥을 먹어도 매번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라. 진실로 남을 질투하고 손해 끼치기를 탐하면 마침내 십년 동안 편안과 건강함이 없을 것이고, 선행을 쌓고 어진 마음을 지니면 반드시 영화로운 후손이 있을 것이다. 복된 인연과 좋은 경사는 바른 행실을 쌓는 데서 기인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고 범상함을 뛰어넘는 것은 모두 진실된 뒤에야 얻어지는 것이니라.

王良曰，欲知其君，先視其臣。欲知其人，先視其友。欲知其父，先視其子。君聖臣忠，父慈子孝。

왕량이 말하였다. 그 임금을 알려면 먼저 그의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려면 먼저 그의 친구를 볼 것이며, 그 아비를 알려면 먼저 그의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신하는 충성스러울 것이요, 아버지가 자애로우면 아들은 효성스러운 법이니...

家語云，水至清則無魚，人至察則無徒。

가어에 이르기를,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너무 살피면 따르는 무리가 없느니라.

許敬宗曰，春雨如膏，行人惡其泥濘，秋月揚輝，盜者憎其照鑑。

허경종이 말하였다. 봄비는 기름과 같으나(농작물에 내리는 단비와 같다는 뜻) 행인은 그 비의 진창길을 싫어하고, 가을 달은 밝은 빛을 날리나 도둑은 그 달의 밝게 비침을 미워하느니라.

景行錄云，大丈夫，見善明故，重名節於泰山，用心剛故，輕死生於鴻毛。

경행록에 이르기를, 대장부는 선을 보는 것이 밝은 까닭에 명분과 절개를 태산보다도 중하게 여기고, 마음을 쓰는 것이 강직한 까닭에 사생(死生)을 홍모(鴻毛)보다도 가볍게 여기느니라.

悶人之凶，樂人之善，濟人之急，救人之危。

남의 흉함을 민망히 여기고, 남의 선을 즐거워하며, 남의 급한 것을 구제하고, 남의 위험한 것을 구하라.

經目之事，猶恐未眞，背後之言，豈足深信。

눈을 지나는 일, 즉 눈으로 직접 겪은 일이라도 오히려 참되지 아니할까 두려워 하거늘, 등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깊이 믿을 수 있으리오?

不恨自家蒲繩短，只恨他家苦井深。

자기 두레박 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남의 쓴 우물이 깊다고 한탄하는구나.

賊濫滿天下，罪拘薄福人。

뇌물을 받고 참람(僭濫)하는 일이 천하에 가득할지라도 죄는 박복한 사람만 잡는구나.

天若改常，不風卽雨，人若改常，不病卽死。

하늘이 만약 항상된 것을(常道를) 고치면 바람이 불지 않아도 바로 비가 오고, 사람이 만약 항상된 것을(常道를) 고치면 병이 들지 않아도 바로 죽어버리느니라.

●卽과 則은 같은 글자?

卽을 흔히 則과 같은 뜻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그 쓰임새가 전혀 다른 글자이다. 則은 두 문장을 이어주는 일종의 접속사로서 앞 문장을 가정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일의 선후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글자이고, 卽은 일종의 부사로서(술어 앞에서 한정하거나 또는 단순히 부사로) “곧, 바로,

당장”의 뜻이다. ㉔ 卽死(즉사), 卽興(즉흥), 卽時(즉시), 一觸卽發(일촉즉발). 옥편에 卽과 則을 모두 “곧 즉”으로 풀어 놓아서 그 쓰임새마저 같은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다른 글자임에 유의할 것

狀元詩云, 國正天心順, 官清民自安, 妻賢夫過少, 子孝父心寬。

장원시에 이르기를, 나라가 바르면 천심(天心)도 순응할 것이요, 벼슬아치가 청렴하면 백성은 절로 편안할 것이며, 처가 어질면 지아비의 허물이 적을 것이요,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너그러워지느니라.

子曰, 木受繩則直, 人受諫則聖。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무가 줄을 받으면 곧아지고, 사람이 간언을 받으면 거룩해지느니라.

一派靑山景色幽, 前人田土後人收, 後人收得莫歡喜, 更有收人在後頭。

한 줄기의 청산에 경색이(경치가) 그윽한데, 앞사람의 전토(田土)를 뒷사람이 거두는구나. 뒷사람들은 거두어 들이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다시 거두어 들일 사람이 또 뒤에 있으니...

蘇東坡云, 無故而得千金, 不有大福, 必有大禍。

소동파가 말하였다. 아무런 까닭없이 천금을 얻는 것은 큰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큰 화가 있느니라.

康節邵先生曰, 有人來問卜, 如何是禍福, 我虧人是禍, 人虧我是福。

강절 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어느 사람이 점을 물으러 찾아 왔는데, 무엇과 같은 것이 화복(禍福)이 됩니까? 하거늘, 내가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화(禍)이고,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복(福)이니라 하였다.

大廈千間，夜臥八尺，良田萬頃，日食二升。

천 칸이나 되는 큰 집이라도 밤에 누우면 팔 척 뿐이요, 좋은 밭이 수백만 이랑이라도 하루 먹는 것은 두 되일 뿐이니라.

久住令人賤，頻來親也疎，但看三五日，相見不如初。

오래 머무르면 사람을 천하게 만들고, 자주 찾아 오면 친함도 소원해지느니라. 단지 사흘이나 다섯만 되도 서로 보는 것이 처음만 못한 것을 보아라.

渴時一滴如甘露，醉後添盃不如無。

목마를 때 한방울의 물은 단 이슬과 같고, 술 취한 후에 잔을 더하는 것은 아니함만 못하느니라.

酒不醉人人自醉，色不迷人自迷。

술이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요, 여색이 사람을 미혹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미혹되는 것이니라.

公心若比私心，何事不辨，道念若同情念，成佛多時。

공정한 마음을 만약 사심(私心)에 견주듯(비하듯) 하면 무슨 일인들 분별하지 못할 것이며, 도념(道念)을 정념(情念)과 같이 하면 성불(成佛)을 해도 여러번 하리라.

濂溪先生曰，巧者言拙者默，巧者勞拙者逸，巧者賊拙者德，巧者凶拙者吉。嗚呼，天下拙，刑政撤，上安下順，風清弊絕。

염계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교자는(巧者, 재주만 부리는 사람은) 말을 잘하고, 졸자는(拙者, 의미상 속으로 덕을 갖추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말이 없으며, 교자는 수고롭고 졸자는 편안하다. 교자는 도둑이요, 졸자는 덕인(德人)이며, 교자는 흉하고 졸자는 길하니라. 오호! 천하가 졸하면 형벌과 법이 철폐되어 위로는 편안하고 아래로는 순종하니, 풍속이 맑아지고 폐단이 끊어지리라.

易曰，德薄而位尊，智小而謀大，無禍者，鮮矣。

주역에 이르기를, 덕은 박한데 지위가 높고, 지혜는 작은데 도모함이 큰 사람들 중에 화(禍)가 없는 자는 드무니라.

說苑云，官怠於宦成，病加於小愈，禍生於懈惰，孝衰於妻子，察此四者，慎終如始。

설원에 이르기를, 관리는 벼슬이 이루어지는 데서 게을러지고, 병은 조금 나은 데서 더하여지고, 화는 게으른 데서 생기며, 효는 처자를 보살피는 데서 쇠약해지나니, 이 네 가지 것을 살펴서 삼가 처음과 같이(처음에 지냈던 본 마음을 간직한 채) 마쳐야 할 것이다.

器滿則溢，人滿則喪。

그릇이 가득차면 넘치 듯이 사람이 가득차면 잃게 되느니라.

尺璧非寶，寸陰是競。

한 자 되는 등근 옥이 보배가 아니라, 촌음(아주 짧은 시간)이 바로 다룰 것이로다.

(字義) ○尺은 자 척. “자”는 길이의 단위. ○璧은 등근옥 벽. ㉠完璧(완벽)하다. ○是는 “~이다”(is)의 뜻이고, 非는 “~이 아니다(is not)”의 뜻이다.

羊羹雖美，衆口難調。

양고기 국이 비록 맛있으나, 여러 입을 고르게 맞추기는 어려우니라.

白玉投於泥塗，不能汚涅其色，君子行於濁地，不能染亂其心，松栢可以耐雪霜，明智可以涉艱危。

백옥은 진흙 땅에 던져져도 그 백옥의 색을 시꺼멓게 더럽힐 수는 없으며, 군자는 탁지(濁地)에 가더라도 그의 마음을 더럽히거나 어지럽게 할 수는 없느니라. 따라서 송백(松栢)은 눈과 서리를 견디어 낼 수 있고, 밝은 지혜는 어렵고 위급함을 건널 수 있는 것이니라.

入山擒虎易，開口告人難。

산에 들어가 호랑이를 사로잡기는 쉬워도, 입을 열어 남에게 충고하기는 어려우니라.

遠水不救火，遠親不如隣。

먼 곳의 물은 가까운 곳의 불을 끄지 못할 것ियो, 먼 곳의 친척은 가까운 이웃만 못하느니라.

太公曰，日月雖明，不照覆盆之下，刀劍雖快，不斬無罪之人，非災橫禍，不入慎家之門。

태공께서 말씀하셨다. 해와 달이 비록 밝으나 덮어 놓은 동이 속을 비출 수는 없으며, 칼이 비록 장쾌하기는 하나 죄 없는 사람을 참(斬)할 수는 없다. 그릇된 재앙이 횡화(뜻하지 않은 화)이긴 하나 삼가는 집의 문에는 들어오지 않느니라.

太公曰，良田萬頃，不如薄藝隨身。

태공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밭의 수백만 이랑은 작은 재주 하나가 몸에 따르는 것만 못하느니라.

性理書云，接物之要，己所不欲，勿施於人，行有不得，反求諸己。

성리서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을 대할 때의 요체(要諦)는 자기가 원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यो, 행하고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 돌이켜 자신에게서 구해야 하느니라.

酒色財氣四堵牆，多少賢愚在內廂，若有世人跳得出，便是神仙不死方。

주색재기(술, 여색, 재물, 기운)의 네가지의 담장이 쳐진 곳에(이 세상을 빗댄 말) 수많은 어진이와 어리석은 이가 행랑에 있도다. 만약 세상 사람이 (이곳을) 뛰쳐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은 곧 신선처럼 죽지 않는 방법이니라.

立教篇

子曰，立身有義而孝爲本，喪祀有禮而哀爲本，戰陣有列而勇爲本，治政有理而農爲本，居國有道而嗣爲本，生財有時而力爲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입신(立身)에는 의(義)가 있으니 효(孝)가 근본이 되고, 초상(初喪)과 제사(祭祀)에는 예(禮)가 있으니 슬픔이 근본이요, 싸움터에는 열(列)이 있으니 용맹이 근본이며, 정사(政事)를 다스림에는 이치(理致)가 있으니 농사가 근본이 되고, 나라에 거함에는 도(道)가 있으니 대(代)를 잇는 것이 근본이 되며, 재물을 내는 데에는 때가 있으니 힘이 근본이니라.

景行錄云，爲政之要，曰公與淸。成家之道，曰儉與勤。

경행록에 이르기를, 위정(爲政)의 요체는 공평과 청렴이라 할 것이요, 집안을 이루는 길은 근검과 근면이라 할 것이다.

(字義) ○爲는 ①할 위. ②될 위. ③위할 위. ④~으로 여기다. ~으로 삼다. ⑤~을 만들다. ~을 짓다. 위에서는 ①의 뜻이다. ○要是 명사로는 요긴한 것, 긴요한 것, 요점, 요체 등의 뜻이다. ○與는 “~와”의 뜻. ○淸은 청렴하다는 뜻. ○勤은 부지런할 근.

讀書起家之本，循理保家之本，勤儉治家之本，和順齊家之本。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를 쫓는 것은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이며, 근검은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화순(화목하고 순종하는 것)은 집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니라.

孔子三計圖云，一生之計在於幼，一年之計在於春，一日之計在於寅。幼而不學，老無所知，春若不耕，秋無所望，寅若不起，日無所辦。

공자의 삼계도(세가지의 계획)에 이르기를,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그러므로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바가 없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를 판단할 바가 없느니라.

性理書云，五教之目，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

성리서에 이르기를, 오교(다섯가지 가르침)의 조목은 부자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군신간에는 의(義)가 있어야 하며,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간에는 차례가 있어야 하며, 붕우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느니라.

三綱，君爲臣綱，父爲子綱，夫爲婦綱。

삼강은 임금의 신하의 버리가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버리가 되며, 지아버는 지어미의 버리가 되는 것이니라.

王蠋曰，忠臣不事二君，烈女不更二夫。

왕축이 말하였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남편을 고치지 아니한다.

忠子曰，治官莫若平，臨財莫若廉。

충자가 말했다. 벼슬일을 다스림에는 공평함 만한 것이 없고, 재물에 임해서는 청렴함 만한 것이 없다.

張思叔座右銘曰，凡語必忠信，凡行必篤敬，飲食必慎節，字劃必楷正，容貌必端莊，衣冠必肅整，步履必安詳，居處必正靜，作事必謀始，出言必顧行，常德必固持，然諾必重應，見善如己出，見惡如己病，凡此十四者，皆我未深省，書此當座右，朝夕視爲警。

장사숙의 좌우명에 이르기를, 모든 말은 반드시 정성되고 신의가 있어야 하고, 모든 행동은 반드시 독실하고 조심해야 하며, 음식은 반드시 삼가고 절제하여야 하며, 글씨는 반드시 똑바르게 써야 하며, 용모는 반드시 단정하여야 하고, 의관은 반드시 엄숙하고 바르게 하여야 하며, 걸음 걸이는 반드시 안정되고 차분해야 하며, 거처는 반드시 바르고 고요해야 하며, 일을 꾸밀 때는 반드시 시작을 잘 피하여야 하고, 말을 할 때는 반드시 행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보아야 하며, 평상(平常)의 덕을 받드

시 굳게 지녀야 하고, 승낙은 반드시 신중하게 응해야 하며, 선한 일을 보기를 내게서 나오듯이 하며, 악한 일을 보기를 내 병인 듯 하여야 하느니라. 무릇 이 14가지 것을 모두 나는 아직 깊이 성찰하지 못하였으니, 이를 글로 써서 자리의 구석에 붙여 놓고는 아침 저녁으로 보고서 경계로 삼으리라.

范益謙座右戒曰，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三不言衆人所作過惡之事，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五不言財利多少厭貧求富，六不言淫媒戲慢評論女色，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

범익겸의 좌우계에 이르기를, 첫째, 조정의 이해(利害), 변방의 보고(報告)와 벼슬자리에 파견되고 제수되는 것을 말하지 말라. 둘째, 주현(州縣) 관원(官員)들의 장단(長短)이나 득실(得失)을 말하지 말라. 셋째, 못사람들이 짓는 바, 과실과 악행의 일들을 말하지 말라. 넷째, 관직에 벼슬하여 나아가고, 또는 시세를 쫓고 부합한다는 등 말하지 말라. 다섯째, 재물의 이익이 많고 적음과 가난을 싫어하고 부(富)를 구한다는 등 말하지 말라. 여섯째, 음란하며 외설적이고 희롱하며 업신여기는 것과 여색을 논평하는 말을 하지 말라. 일곱째, 남의 물건을 구하거나 술과 음식을 구하는 말을 하지 말라.

又曰，一人付書信不可開坼沈滯，二與人并座不可窺人私書，三凡入人家不可看人文字，四凡借人物不可損壞不還，五凡喫飲食不可揀擇去取，六與人同處不可自擇便利，七凡人富貴不可歎羨詆毀，凡此數事有犯之者，足以見用心之不肖，於存心修身，大有所害，因書以自警。

또 이르기를, 첫째, 남이 부친 서신을 함부로 뜯거나 또는 전달하지 않고 묵혀 두어서는 안된다. 둘째,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앉아서 남의 개인적인 편지를 엿보아서 안된다. 셋째, 무릇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 남이 사사로이 적어 놓은 글자들을 보아서 안된다. 넷째, 무릇 남의 물건을 빌려와서는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되돌려 주지 않아서는 안된다. 다섯째, 무릇 음식을 먹고 마실 때는 가리거나 버려서는 안된다. 여섯째, 남과 같이 처할 때는 편리를 스스로 가려서는 안된다. 일곱째, 무릇 남의 부귀를 감탄하여 부러워하거나 흥보고 혈뜬어서는 안된다. 무릇 이 여러가지 일들을 범하는 자는 마음 씩씩이가 불초(不肖)하여 존심(存心)과 수신(修身)에 해로운 바가 크게 있음을 보기에 충분하다. 그리하여 글을 써서(以) 스스로 경계하노라.

武王問太公曰，人居世上，何得貴賤貧富不等，願聞說之，欲知是矣。太公曰，富貴如聖人之德，皆由天命，富者用之有節，不富者家有十盜。

무왕이 태공에게 물어 말하였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귀천과 부귀가 같을 수 없는가? 원컨대 그것에 대해 말씀을 듣고 그 까닭을 알고 싶소이다. 태공이 말하였다. 부귀는 성인의 덕과 같아서 모두 천명에 맡기암거니와, 부유한 자는 씩씩이에 절제가 있으나 부유하지 못한 자는 집안에 열가지 도둑이 있나이다.

武王曰，何爲十盜。太公曰，時熟不收爲一盜，收積不了爲二盜，無事燃燈寢睡爲三盜，慵懶不耕爲四盜，不施工力爲五盜，專行巧害爲六盜，養女太多爲七盜，晝眠懶起爲八盜，貪酒嗜慾爲九盜，強行嫉妬爲十盜。

무왕이 말했다. 무엇이 열가지 도둑이 됩니까? 태공이 대답하였다. 때가 무르익었는데도 곡식을 거두어 들이지 않는 것이 첫번째 도둑이요, 곡식을 거두어 쌓아두기를 마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도둑이고, 아무일도 없이 등불을 켜놓고 잠자는 것이 세번째 도둑이요, 게을러서 밭을 갈지 않는 것이 네번째 도둑이요,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다섯번째 도둑이요, 피만 부려 남을 해치는 일만 오로지 행하는 것이 여섯째 도둑이요, 딸 기르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이 일곱째 도둑이요, 낮까지 잠자고 게을리 일어나는 것이 여덟째 도둑이요, 술 마시기를 탐하며 즐기는 것이 아홉째 도둑이요, 억지로 행하고 남을 질투하는 것이 열번째 도둑입니다.

武王曰，家無十盜，不富者，何如。太公曰，人家必有三耗。武王曰，何名三耗。太公曰，倉庫漏濫不蓋，鼠雀亂食爲一耗，收種失時爲二耗，拋撒米穀穢賤爲三耗。

무왕이 말하였다. 집안에 열가지 도둑이 없는데도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태공이 대답하였다. 집안에 반드시 세가지 소모함이 있습니다. 무왕이 말하였다. 무엇을 세가지 소모라고 이름합니까? 태공이 대답하였다. 창고가 세어 밖으로 넘쳐나 쥐와 참새들이 어지럽게 먹어대는 것이 첫번째 소모함이요, 거두고 씨뿌리는데 때를 놓치는 것이 두번째 소모함이요, 곡식을 버리고 흩뿌려 더럽고 천하게 하는 것이 세번째 소모함입니다.

武王曰，家無三耗，不富者，何如。太公曰，人家必有一錯二誤三痴四失五逆六不祥七奴八賤九愚十强，自招其禍，非天降殃。

무왕이 말하였다. 집안에 세가지 소모함이 없는데도 부유하지 않은 자는 왜 그렇습니까? 태공이 대답하였다. 집안에 반드시 일착, 이오, 삼치, 사실, 오역, 육불상, 칠노, 팔천, 구우, 십강이 있으니, 그화를 스스로 부르는 것이요,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武王曰，願悉聞之。太公曰，養男不教訓爲一錯，嬰孩勿訓爲二誤，初迎新婦不行嚴訓爲三痴，未語先笑爲四失，不養父母爲五逆，夜起赤身爲六不祥，好挽他弓爲七奴，愛騎他馬爲八賤，喫他酒勸他人爲九愚，喫他飯命朋友爲十强。武王曰，甚美誠哉，是言也。

무왕이 말하였다. 원컨대 그것을 다 듣고 싶습니다. 태공이 대답하였다. 사내아이를 기르는데 가르치지 아니함이 일착(첫째 착오)이요, 어린 아이를 훈계하지 않는 것이 이오(두번째 오류)이요, 신부를 처음 맞아들여서 엄한 훈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삼치(세번째 어리석은 짓)이요, 아직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웃어버리는 것이 사실(네번째 실수)요,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오역(다섯째 거스름)이요, 밤에 발가벗은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육불상(여섯째 상서롭지 못한 일)이요, 남의 활을 당기기를 좋아함이 칠노(일곱째 노비같은 짓)이요, 남의 말을 타기를 좋아함이 팔천(여덟째 천한 짓)이요, 남의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구우(아홉째 어리석은 짓)이요, 남의 밥을 먹으면서 친구에게 먹기를 명하는 것은 십강(열번째 강요)입니다. 무왕이 말하였다. 매우 아름답고 진실하도다. 그 말씀이여!!

治政篇

明道先生曰, 一命之士, 苟存心於愛物, 於人必有所濟。

명도 선생이 말씀하셨다. 처음 벼슬하는 선비라도 진실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사람들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는 바가 있으리라.

唐太宗御製云, 上有靡之, 中有乘之, 下有附之, 幣帛衣之, 倉廩食之, 爾俸爾祿, 民膏民脂, 下民易虐, 上蒼難欺。

당나라 태종의 어제에 이르기를, 위에서는 지휘하고, 중간에서는 이를 이어 다스리고, 아래에서는 이에 부합할지니라. 백성이 바친 폐백으로는 옷을 해 입고, 백성이 바친 곳간의 쌀로는 음식을 먹으니, 너의 봉록(俸祿)은 모두 다 백성의 기름과 살찎이도다. 백성을 확대하기는 쉬우나, 저 위 푸른 하늘을 속이기는 어려운 법이로다.

童蒙訓曰, 當官之法, 唯有三事, 曰清曰慎曰勤, 知此三者, 知所以持身矣。

동몽훈에 이르기를, 관직에 임해야 하는 법에는 오직 세가지 일이 있으니, 청렴이라 할 것이요, 신중이라 할 것이요, 근면이라 할 것이다. 이 세가지 것을 알면 몸을 지니는 방도를 안다 할 것이다.

當官者, 必以暴怒爲戒, 事有不可, 當詳處之, 必無不中, 若先暴怒, 只能自害, 豈能害人。

관직에 임한 자는 반드시 사납게 성내는 것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 일에 불가(不可)한 것이 있거든 마땅히 상세히 처리하면 반드시 들어 맞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만약 먼저 사납게 성을 내면 다만 스스로를 해칠 뿐이지 어찌 남을 해치겠는가?

事君如事親, 事長官如事兄, 與同僚如家人, 待群吏如奴僕, 愛百姓如妻子, 處官事如家事然後, 能盡吾之心, 如有毫末不至, 皆吾心有所未盡也。

임금 섬기기를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이 하며, 웃사람 섬기기를 형을 섬기는 것 같이 하며, 동료와 더불어 자기집 사람 같이 하며, 여러 아전 대하기를 자기집 노복 같이 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처자 같이 하며, 관직의 일 처리하기를 내 집안일처럼 하고 난 연후에야 능히 내 마음을 다했다 할 것이니라. 만약 털끝만치라도 이에 이르지 못함이 있으면 모두 내 마음에 미진한 바가 있는 것이니라.

或問, 簿佐令者也, 簿所欲爲, 令或不從, 奈何。伊川先生曰, 當以誠意動之, 今令與簿不和, 只是爭私意, 令是邑之長, 若能以事父兄之道事之, 過則歸己, 善則唯恐不歸於令, 積此誠意, 豈有不動得人。

어떤 사람이 물었다. 부(簿)는 영(令)을 보좌하는 자입니다. 부가 하고자 하는 바를 영이 혹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천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진실된 뜻으로 영을 움직여야(감응시켜야) 할 것이니라. 지금 영과 부가 화목하지 못한 것은 다만 사사로운 뜻을 다투기 때문이니라. 영은 고을의 우두머리이니, 만약 부형(父兄)을 섬기는 도리로서 영을 섬기되, 잘못이 있으면 자기에게로 돌리고 잘한 것이 있으면 영에게 그 공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찌나 근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진실된 뜻을 쌓는다면 어찌 사람을 움직이지(감응시키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劉安禮問臨民，明道先生曰，使民各得輸其情。 問御史曰，正己以格物

유안례가 백성에 임하는 법에 대해서 묻자, 명도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으로 하여금 각자 그들의 뜻을 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느니라. 또 아전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묻자, 말씀하셨다.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以) 남을 바르게 하여야 하느니라.

抱朴子曰，迎斧鉞而正諫，據鼎鑊而盡言，此謂忠臣也。

포박자에 이르기를, 도끼를 들이 맞아도 바르게 간언하며, 술에 들어 앉아도 옳은 말을 다할 수 있다면 이를 일러 충신이라고 한다.

治家篇

司馬溫公曰，凡諸卑幼，事無大小，毋得專行，必咨稟於家長。

사마온 공이 말하였다. 무릇 지위가 낮고 어린 모든 사람들은 일이 크건 작건 구별없이 제멋대로 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집안의 어른께 묻고 여쭙어야 할 것이다.

待客不得不豐，治家不得不儉。

손님을 대접할 때는 풍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집안을 다스림에는 검소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太公曰，痴人畏婦，賢女敬夫。

태공이 말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어진 여자는 남편을 공경하느니라.

凡使奴僕，先念飢寒。

무릇 노복을 부릴 때는 먼저 그들의 춥고 배고픔을 생각할지니라.

子孝雙親樂，家和萬事成。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兩親)이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時時防火發，夜夜備賊來。

수시로 불이 날 것을 막고, 밤마다 도적이 들 것을 대비할지니라.

景行錄云，觀朝夕之早晏，可以卜人家之興替。

경행록에 이르기를, 아침 저녁의 이르고 늦음을 관찰하면 그 집안의 흥하고 쇠함을 점칠 수 있느니라.

文仲子曰，婚娶而論財，夷虜之道也。

문중자가 말하였다. 혼인하고 장가드는데 있어서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들의 도리이니라.

安義篇

顏氏家訓曰，夫有人民而後有夫婦，有夫婦而後有父子，有父子而後有兄弟，一家之親，此三者而已矣。自茲以往，至于九族，皆本於三親焉。故，於人倫，爲重也，不可無篤。

안씨 가훈에 이르기를, 대저 백성이 있는 뒤에 부부가 있고, 부부가 있는 뒤에 부자가 있고, 부자가 있는 뒤에 형제가 있나니, 일가의 친함은 이 세 가지일 뿐이니라. 이로부터 구족(九族)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삼친(三親)에 근본을 두느니라. 그러므로 인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니 돈독함이 없어서는 안되느니라.

莊子曰, 兄弟爲手足, 夫婦爲衣服, 衣服破時更得新, 手足斷處難可續。

장자가 말하였다. 형제는 수족이 되는 것이요, 부부는 의복이 되는 것이다. 의복이 떨어졌을 시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으나, 수족이 찢어진 곳은 잇기가 어려우니라.

蘇東坡云, 富不親兮貧不疎, 此是人間大丈夫, 富則進兮貧則退, 此是人間眞小輩。

소동파가 말하였다. 상대가 부유하다고 해서 친한 척 하지 않고, 상대가 가난하다고 해서 소원하게 하지 않는 것! 이는 바로 인간 세상의 대장부라 할 것이요, 상대가 부유하면 나아가고, 상대가 가난하면 물러나는 것! 이는 바로 인간 세상의 진짜 소인배라 할 것이다.

遵禮篇

子曰, 居家有禮故長幼辨, 閨門有禮故三族和, 朝廷有禮故官爵序, 田獵有禮故戎事閑, 軍旅有禮故武功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집안에 거처함에 예(禮)가 있는 까닭에 어른과 아이는 분별이 있고, 규문(閨門)에 예가 있는 까닭에 삼족(三族)이 화목하고, 조정에 예가 있는 까닭에 관작(官爵)에 차례가 있으며, 전렵(田獵)에 예가 있는 까닭에 군사일이 익숙해지며, 군대에 예가 있는 까닭에 무공(武功)이 이루어지느니라.

子曰, 君子有勇而無禮爲亂, 小人有勇而無禮爲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용기만 있고 예(禮)가 없으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소인이 용기만 있고 예(禮)가 없으면 도둑이 되느니라.

曾子曰，朝廷莫如爵，鄉黨莫如齒，輔世長民莫如德。

증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에는 벼슬 만한 것이 없고, 향당(鄉黨)에는 나이 만한 것이 없고, 보세장민에는(세상을 돕고 백성의 우두머리·어른노릇 하는 데에는) 덕(德) 만한 것이 없느니라.

老少長幼，天分秩序，不可悖理而傷道也。

노소장유(老少長幼)는 하늘이 나눈 차례이니, 이치를 거스려 도를 해쳐서는 안되느니라.

出門如見大賓，入室如有人。

밖에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뵈는 듯이 하고, 방에 들어와 있을 때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하여 (홀로 있어도 몸가짐을 삼가야 한다)

若要人重我，無過我重人。

만약 남이 나를 중하게 여기기를 요한다면, 내가 남을 중하게 여기는 것에 지나는 것은 없다(내가 남을 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

父不言子之德，子不談父之過。

아버지는 아들의 덕을 말하지 않으며, 자식은 아버지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

言語篇

劉會曰，言不中理，不如不言。

유회가 말하였다.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느니라.

一言不中，千語無用。

한 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이 쓸데 없느니라.

君平曰，口舌者，禍患之門，滅身之斧也。

군평이 말하였다. 구설(口舌)이란 것은 화(禍)와 우환(憂患)의 문이요, 몸을 멸하는 도끼이니라.

利人之言，煖如綿絮，傷人之語，利如荊棘，一言半句，重值千金，一語傷人，痛如刀割。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듯하기가 솜과 같고 사람을 해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와 같다. 따라서 일언반구(一言半句)라도 중하기가 천금에 해당하고 한 마디 말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아프기가 칼로 베는 것과 같으니라.

口是傷人斧，言是割舌刀，閉口深藏舌，安身處處牢。

입은 사람을 해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몸을 편안히 하기가 어느 곳에서나 굳어지리로다.

逢人且說三分話，未可全拋一片心，不怕虎生三個口，只恐人情兩樣心。

사람을 만나서 잠시 약간의 대화를 주고 받되, 아직 (상대방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 놓아) 한 조각 마음까지 전부 다 내비쳐서는 안된다. 호랑이의 세 개 난 입이 두려운 것이 아니요, 다만 사람의 정이 두가지 마음이 될까 두려운 것이다.

酒逢知己千鐘少，話不投機一句多。

술이 지기(知己)를 만나면 천 잔도 적고, 말이 기미(機微)를 맞추지 못하면 한 마디도 많으니라.

交友篇

子曰，與善人居，如入芝蘭之室，久而不聞其香，即與之化矣。與不善人居，如入鮑魚之肆，久而不聞其臭，亦與之化矣。丹之所藏者赤，漆之所藏者黑，是以，君子必慎其所與處者焉。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선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마치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안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냄새를 맡지 못하니, 이는 바로 그와 더불어 동화된 것이니라.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마치 저린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니, 이 또한 그와 더불어 동화된 것이니라. 단사(丹砂)가 품고 있는 것은 붉은 색이요, 옷이 품고 있는 것은 검은 색이니, 이런 까닭에 군자는 그 함께 처하는 바의 것을 반드시 삼가야 하느니라.

家語云，與好學人同行，如霧露中行，雖不濕衣，時時有潤，與無識人同行，如廁中坐，雖不污衣，時時聞臭。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이르기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마치 안개와 이슬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을 흠뻑 적시지는 않더라도 때때로 축축함이 있노라. 무식한 사람과 동행하면 마치 뒹간에 앉은 것 같아서 비록 옷은 더럽히지 않더라도 때때로 그 냄새를 맡느니라.

子曰，晏平仲，善與人交，久而敬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안평중은 사람과 사귀기를 잘하였으니, 오래되어도 그 벗을 공경하였노라.

相識滿天下，知心能幾人。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하되, 마음 알아주기를 능히 하는자는 몇이나 되겠는가?

酒食兄弟千個有，急難之朋一個無。

주식형제는(술마시고 먹고 놀 때, 형이니 동생이니 하는 사이는) 천 개가 있으나, 급난지봉은(위급하고 어려운 때 도와주는 벗은) 일 개도 없구나.

不結子花休要種，無義之朋不可交。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으려 하지 말고, 의리 없는 벗은 사귀어서는 안되느니라.

君子之交淡如水，小人之交甘若醴。

군자의 사귄은 담담하여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귄은 달아서 단술 같으니라.

路遙知馬力，日久見人心。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날이 오래 지나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婦行篇

동의서스쿨

益智書云，女有四德之譽，一曰婦德，二曰婦容，三曰婦言，四曰婦工也。

익지서에 이르기를, 여자에게는 사덕(四德)의 명예가 있으니, 첫째는 부덕(婦德)이라 할 것이요, 둘째는 부용(婦容)이라 할 것이요, 셋째는 부언(婦言)이라 할 것이요, 넷째는 부공(婦工)이라 할 것이다.

婦德者不必才名絕異，婦容者不必顏色美麗，婦言者不必辯口利詞，婦工者不必技巧過人也。

부덕(婦德)이라는 것은 재주와 이름이 매우 뛰어날 필요가 없으며, 부용(婦容)이라는 것은 얼굴빛이 아름답고 고을 필요가 없으며, 부언(婦言)이라는 것은 능변의 입이 날카롭게 말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부공(婦工)이라는 것은 기교가 남을 지나는 것을(남보다 뛰어난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其婦德者清貞廉節，守分整齊，行止有恥，動靜有法，此爲婦德也。婦容者洗浣塵垢，衣服鮮潔，沐浴及時，一身無穢，此爲婦容也。婦言者擇師而說，不談非語，時然後言，不厭於人，此爲婦言也。婦工者專勤紡績，勿好暈酒，供具甘旨，以奉賓客，此爲婦工也。

그 부덕(婦德)이라는 것은 정조와 절개를 깨끗하게 하며, 분수를 지키고 몸 가짐을 정돈하여 가지런히 하며, 행동거지(行動舉止)에 염치가 있으며, 동정지간(動靜之間)에 법도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부덕(婦德)이 되는 것이요, 부용(婦容)이라는 것은 몸의 먼지나 때를 씻어내며, 의복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목욕을 제 때에 하여 일신에 더러움이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부용(婦容)이 되는 것이요, 부언(婦言)이라는 것은 사표(師表)가 될 만한 사람을 가려서 말하되, 그릇된 말은 이야기하지 않으며, 때가 된 연후에 말을 하여 사람들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않으니 이것이 부언(婦言)이 되는 것이요, 부공(婦工)이라는 것은 길쌈을 오로지 부지런히 하며 얼굴이 붉어지도록 술 마시기를 좋아하지 않고, 좋은 맛을 갖추어서(以) 손님을 받드는 것이니 이것이 부공(婦工)이 되느니라.

此四德者，是婦人之大德，而不可缺之者也，爲之甚易，務之在正，依此而行，是爲婦節。

이 네가지 덕은 아녀자의 큰 덕이니 결(缺)해서는 안될 것들이다. 이를 행하기는 매우 쉬우며, 이를 힘쓰는 것은 올바른데 달려 있으니, 이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부절(婦節, 아녀자의 범절)이 되는 것이니라.

太公曰，婦人之禮，語必細。

태공이 말하였다. 부인의 예절로서, 말은 반드시 자세하여야 하느니라.

(字義) ○細는 가늘 세. 語必細는 말을 자상하고 부드럽게 한다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賢婦令夫貴，佞婦令夫賤。

어진 부인은 남편을 귀하게 하고, 말재주나 피는 부인은 남편을 천하게 하느니라.

家有賢妻，夫不遭橫禍。

집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횡화(橫禍)를 만나지 않느니라.

賢婦和六親，佞婦破六親。

어진 부인은 육친을 화목하게 하고, 말재주나 피는 부인은 육친을 깨뜨리느니라.

增補篇

周易曰，善不積，不足以成名，惡不積，不足以滅身。小人，以小善爲无益而弗爲也，以小惡爲无傷而弗去也，故，惡積而不可掩，罪大而不可解。

주역에 이르기를, 선을 쌓지 않으면 족히 이름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악을 쌓지 않으면 족히 몸을 망칠 수 없을 것이거늘, 소인은 조그마한 선(善)으로서는 이로움이 없다고 여겨 행하지 않으며, 조그마한 악(惡)으로서는 해로움이 없다고 여겨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이 쌓이면 가릴 수 없을 것이며, 죄가 커져서는 풀 수 없느니라.

履霜堅氷至。臣弑其君，子弑其父，非一旦一夕之事，其由來者漸矣。

서리를 밟으면 얼음이 된다 하니,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며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이는 것이 하루 아침이나 하루 저녁의 일이 아니라 그 유래한 것은 점차로 그렇게 된 것이다.

八反歌八首

팔반가(八反歌) 여덟 수(首)는 아버이를 봉양하고 아이를 기름에 있어서, 그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서 갖는 여덟 가지의 상반된 마음을 비교하여 읊은 노래이다. 아이를 대하는 마음과 늙으신 아버이를 대하는 마음을 실례를 들어가며 그 상반된 태도를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저며 오지 않을 자 몇이나 될까?

幼兒或謂(리)我, 我心覺歡喜, 父母嗔怒我, 我心反不甘, 一歡喜一不甘, 待兒待父心何懸, 勸君今日逢親怒, 也應將親作兒看。

어린 아이가 혹 나를 꾸짖으면 나의 마음은 환희를 깨닫고 부모가 나에게 성을 내면 나의 마음은 도리어 달갑지 않게 여긴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달갑지 않으니, 아이를 대하고 아버이를 대하는 마음이 어찌 이리도 현격한고? 그대에게 권하노니, 오늘 아버이가 성내는 것을 당하거든 또한 응당 아버이를 아이처럼 보아 (기쁘게 여겨야 할 것이다.)

兒曹出千言, 君聽常不厭, 父母一開口, 便道多閑管, 非閑管親掛牽(과견), 皓首白頭多諳練, 勸君敬奉老人言, 莫教乳口爭長短。

어린 자식들은 천 마디의 말을 하되 그대가 듣기에 늘 싫어하지 않고, 아버이는 한번 입을 벌려도 곧 쓸데없는 간섭이 많다고 한다. 쓸데없는 간섭이 아니라 아버이는 마음이 쓰여서 그런 것이다. 흰 머리, 센 머리가 되도록 오래 살았으니 알고 경험한 것이 많기 마련이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은 사람의 말을 공경하여 받들고, 젖내 나는 입으로 일의 길고 짧음을 다투지 말지니라.

幼兒尿糞穢, 君心無厭忌, 老親涕唾零, 反有憎嫌意, 六尺軀來何處, 父精母血成汝體, 勸君敬待老來人, 壯時爲爾筋骨敝。

어린아이의 오줌과 똥 같은 더러운 것은 그대 마음에 싫어하거나 꺼리낌이 없으나, 늙은 아버이의 눈물과 침이 떨어지는 것은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뜻이 있다. 육 척의 몸이 온 곳이 어디인가? 아버지의 정기(精氣)와 어머니의 피가 그대의 몸을 이루었노라. 그대에게 권하노니, 늙어가는 사람을 공경하여 대접하라. 젊었을 때 그대를 위하여 살과 뼈가 닳도록 애를 쓰셨느니라.

看君晨入市，買餅又買糕，少聞供父母，多說供兒曹，親未啖兒先飽，子心不比親心好，勸君多出買餅錢，供養白頭光陰少。

그대가 새벽에 시장에 들어가서 떡을 사고 또 흰떡을 사는 것은 보았으되, 부모에게 드린다는 것은 별로 듣지 못했고, 자식들에게 준다고들 많이 말한다. 아버이는 아직 먹지도 아니 하였는데 아이가 먼저 배 부르니, (봉양하는) 자식의 마음은 (늙으신) 부모 마음이 좋아하는 것에 비하지 못하는도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떡 살 돈을 많이 내서 늙은 아버이를 잘 공양(供養)하라. 세월은 길지 않으니...

市間賣藥肆，惟有肥兒丸，未有壯親者，何故兩般看，兒亦病親亦病，醫兒不比醫親症，割股還是親的肉，勸君亟保雙親命。

시장에 있는 약 파는 가게에는 오직 아이를 살찌게 하는 약은 있으되, 아버이를 튼튼하게 하는 약은 없으니 무슨 까닭으로 이 두가지를 보는고? 아이도 병들고 아버이도 병들기는 마찬가지로이거늘 아이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버이의 병을 고치는 것에 비하지 못하는구나. 넓적 다리를 베더라도 도로 아버이의 살이로세. 그대에게 권하노니 빨리 두 아버이의 목숨을 보전하라.

富貴養親易，親常有未安，貧賤養兒難，兒不受饑寒，一條心兩條路，爲兒終不如爲父，勸君兩親如養兒，凡事莫推家不富。

부하고 귀하면 아버이를 봉양하기 쉬운데도 아버이는 항상 미안함이 있고, 가난하고 천하면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데도 아이는 배고프고 추운 것을 받지 않는다. 한 가지 마음에 두 가지 길이니, 아이를 위함이 마침내 아버이를 위함만 못하구나. 그대에게 권하노니, 양친을 아이 봉양하듯 하고 모든 일을 집이 부유하지 못해서라고 미루지 말라.(핑계를 대지 마라)

養親只二人，常與兄弟爭，養兒雖十人，君皆獨自任，兒飽暖親常問，父母饑寒不在心，勸君養親須竭力，當初衣食被君侵。

아버이를 봉양함에는 다만 두 사람인데도 늘 형제가 더불어 다투고, 아이를 기름에는 비록 열 사람이라도 그대는 모두 혼자 스스로 맡으려 한다. 아이가 배 부르고 따뜻한 것은 그 아버이가 늘 물으나, 부모가 배 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있지도 않구나. 그대에게 권하노니, 아버이를 봉양함에는 모름지기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애당초 입을 것과 먹을 것을 그대에게 빼앗겼느니라.

親有十分慈，君不念其恩，兒有一分孝，君就揚其名，待親暗待子明，誰識高堂養子心，勸君漫信兒曹孝，兒曹親子在君身。

아버이는 100% 자애로움이 있어도 그대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이에게 10% 효도함이 있어도 그대는 곧 그 이름을 널리 세상에 날리려 한다. 아버이를 대접하는 것은 어둡고, 자식을 대하는 것은 밝으니, 누가 고당(高堂)의 자식 길렀던 마음을 알아줄 것인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아이들의 효도를 그냥 헛된 것으로 믿고 넘겨라. 아이들의 아버지도 부모의 자식도 그대의 몸에 있는 것이니라.

孝行篇續

이 편은 앞에 나온 효행편의 속편으로 효행에 관한 실례를 들고 있다. 옛사람들의 실제 효행(孝行)을 통해 그 효심(孝心)을 엿볼 수 있으리라.

孫順，家貧，與其妻傭作人家以養母，有兒每奪母食。順謂妻曰兒奪母食，兒可得，母難再求。乃負兒往歸嶺山北郊，欲埋掘地，忽有甚寄石鐘，驚怪試撞之，舂容可愛。妻曰得此寄物，殆兒之福，埋之不可。順以爲然，將兒與鐘還家，懸於樑撞之。王聞鐘聲清遠異常而覈聞其實，曰昔郭巨埋子，天賜金釜，今孫順埋兒，地出石種，前後符同。賜家一區，歲給米五十石。

손순이 집이 가난하여 그의 아내와 더불어 남의 집에 품을 팔아서(以) 그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그 아이가 매양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뺏는지라, 순이 아내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이가 어머니의 잡수시는 것을 빼앗소. 아이는 또 얻을 수 있으나 어머니는 다시 구하기 어렵소”하였다. 이에 아이를 업고 취산 북쪽 교외로 가서, 묻으려고 땅을 팠더니 문득 심히 기이한 석종(石鐘)이 있거늘, 놀랍고 괴이하여 시험삼아 쳐보니 종소리가 사랑스러운지라, 아내가 말하였다. “이 기이한 물건을 얻은 것은 거의 아이의 복이니 아이를 땅에 묻는 것은 불가(不可)합니다.” 순도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와 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대들보에 달고 그 종을 쳤더니 임금이 듣건대 종소리가 맑고 멀고 이상하여 그 사실을 자세히 알아내어 듣고 말하였다. “옛날에 곽거가 아들을 묻었을 때엔 하늘이 금으로 된 술을 주시었더니 지금은 손순이 아들을 묻음에 땅이 석종(石鐘)을 냈으니 전자와 후자가 서로 꼭 맞는다”하고는 집 한 채를 주시고 해마다 쌀 오십석을 주었다.

向德，值年荒癘疫，父母飢病濱死，向德日夜不解衣，盡誠安慰，無以爲養，則割髀肉食之。母發癰，吮之卽癒。王嘉之，賜賚甚厚，命旌其門，立石紀事。

상덕(向德)이 흉년과 역병을 만나서 부모가 굶주리고 병들어 거의 죽게 된지라, 상덕이 일야(日夜)로 옷을 풀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편안하도록 위로하였으나 봉양할 길이 없어서 넙적 다리 살을 베어 그것을 잡수시게 하였으며, 또한 어머니가 종기가 나자, 그것을 빨으니 곧 쾌유하게 되었다. 임금께서 이를 아름답게 여겨 상을 내리시기를 매우 후하게 하여 그 집의 문에 정문(旌門)을 세우게 명하고 비석을 세워 이 일을 적게 하였다.

都氏家貧至孝，賣炭買肉，無闕母饌。一日於市，晚而忙歸，鳶忽攫肉，都悲號至家，鳶既投肉於庭。一日母病索非時之紅柿，都，彷徨柿林，不覺日昏，有虎屢遮前路，以示乘意，都，乘至百餘里山村，訪人家投宿，俄而主人，饋祭飯而有紅柿，都，喜問柿之來歷，且述己意，答曰亡父嗜柿故，每秋擇柿二百個，藏諸窟中而至此五月則完者不過七八，今得五十個完者故，心異之，是天感君孝，遺以二十顆，都謝出門外，虎尚俟伏，乘至家，曉鷄喔喔。後，母以天命終，都有血淚。

도씨는 집은 가난하나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숲을 팔아 고기를 사서 어머니의 식사를 빠뜨리지 않았다. 하루은 시장에서 늦게서야(저녁이 되어서) 바빠 돌아오는데 소리개가 고기를 홀연히 채 가거늘 도씨가 슬피 울며 집에 돌아와서 보니 소리개가 벌써 고기를 집안 뜰에 던져 놓았더라. 하루는 어머니가 병이 나서, 제 철이 아닌 홍시를 찾거늘 도씨가 감나무 수풀을 방황하여 날이 저물은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 때 한 호랑이가 앞길을 여러번 가로 막음으로써(以) 타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지라 도씨가 타고 백 여리나 되는 산 동네에 이르러 인가를 방문하여 투숙하려 하였더니 갑자기 주인이 제 사밥을 차려 주는데 홍시가 있었다. 도씨가 기뻐하여 감의 내력을 묻고 또 자기의 뜻을 말하였더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감을 즐기셨던 까닭에 매 가을에 감을 이백 개를 가려서 굴 안에 감추어 두는데, 이 오월에 이르면 온전한 것이 7, 8개에 지나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쉰 개가 온전한 까닭에 마음 속으로 이상하게 여겼더니 이것은 곧 하늘이 그대의 효성에 감동한 것입니다.”하고, 스무 덩이를 내어 주거늘 도씨가 감사한 뜻을 말하고 문밖에 나오자 호랑이는 아직 기다리며 엎드려 있거늘 호랑이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새벽 닭이 악악대더라(꼬기오 울더라). 뒤에 어머니가 천명으로 돌아가시니, 도씨는 피눈물을 흘리더라.

廉義篇

印觀賣綿於市，有署調者以穀買之而還，有鳶攫其綿，墮印觀家，印觀，取歸于署調曰鳶墮汝綿於吾家，故，還汝，署調曰鳶攫綿與汝，天也，吾何爲受，印觀曰然則還汝穀，署調曰吾與汝者市二日，穀已屬汝矣。二人相讓，并棄於市而歸，掌市官以聞王，竝賜爵。

인관이 시장에서 솜을 파는데 서조(署調)라는 사람이 곡식으로 그것을 사가지고 돌아 가는데 어느 소리개가 그 솜을 채 가지고 인관의 집에 떨어 뜨렸다. 인관이 주어다가 서조에게 돌려 보내고 말하기를, “소리개가 당신의 솜을 내 집에 떨어뜨렸으니 고로, 당신에게 돌려줍니다.”하니, 서조가 말하기를, “소리개가 솜을 움켜 채다가 당신에게 준 것은 하늘이 한 것입니다. 내가 어찌 받을 수 있겠소?”하였다. 인관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당신의 곡식을 돌려주겠소.”하니, 서조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준 것이 벌써 시장이 선지 이틀이 되었으니 곡식은 이미 당신에게 속한 것이요”했다. 두 사람이 서로 사양하다가 솜과 곡식을 시장에다 같이 버리고 돌아와 버렸다. 시장을 관장하는 관원이 이로써(以) 임금께 아뢰어서 나란히 벼슬을 주었다.

洪基燮，少貧甚無料。一日早，婢兒踊躍獻七兩錢曰此在鼎中，米可數石，柴可數駄，天賜天賜。公驚曰是何金。即書失金人推去等字，付之門楣而待。俄而姓劉者，來問書意，公悉言之。劉曰理無失金於人之鼎內，果天賜也，盍取之。公曰非吾物，何。劉俯伏曰小的，昨夜，爲竊鼎來，還憐家勢蕭條而施之，今感公之廉价，良心自發，誓不更盜，願欲常侍，勿慮取之。公即還金曰，汝之爲良則善矣，金不可取，終不受。後，公爲判書，其子在龍爲憲宗國舅，劉亦見信，身家大昌。

흥기섭이 젊었을 때 가난함이 심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더니 어느날 아침에 계집종 아이가 펄쩍 뛰며 와서는 돈 일곱 냇을 바치며 말하기를, “이것이 술 속에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쌀이 몇 섬이요, 나무가 몇 바리는 될 만합니다. 참으로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것이죠”하였다. 공이 놀래서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돈인가?”하고, “失金人 推去”(돈 잃은 사람은 찾아 가라)는 등등의 글자를 곧장 바로 써서 그것을 대문 위 가로댄 나무짝에 붙이고 기다리니, 얼마 안되어 성(姓)이 유(劉)인 자가 찾아와 글의 뜻을 물었다. 공이 그것을 다 말해 주니, 유(劉)가 말하기를, “남의 술 속에다 돈을 잃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과연 하늘이 주신 것인데 어찌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하니, 공이 말하기를, “나의 물건이 아닌데 어찌 가질 것이요.”하자, 유(劉)가 몸을 구부려 엎드리며 말했다. “소인이 어젯밤 술을 훔치러 왔다가 도리어 가세가 너무 쓸쓸한 것을 불쌍히 여겨 이것을 놓고 돌아 갔더니 지금 공의 청렴하고 착함에 감복하여 양심이 스스로 일어나니, 다

시는 도둑질을 아니할 것을 맹세하옵고, 늘 옆에서 모시기를 원하오니 그 돈을 취하기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하였다. 공이 곧장 돈을 돌려주며 말하기를, “당신이 선량하게 된 것은 참 좋으나 이 돈은 취할 수 없소.”하고 끝끝내 받지 않았다. 뒤에 공은 판서가 되고 그의 아들 재룡이 현종의 장인이 되었으며, 유(劉)도 또한 신임을 얻어서 몸과 집안이 크게 번창하였다.

高句麗平原王之女，幼時好啼。王戲曰以汝將歸于溫達。及長，欲下嫁于上部高氏，女以王不可食言，固辭，終爲溫達之妻。蓋溫達家貧，行乞養母，時人目爲愚溫達也。一日，溫達自山中，負榆皮而來。王女訪見曰吾乃子之匹也。乃賣首飾而買田宅器物，頗富，多養馬以資溫達，終爲顯榮。

고구려 평원왕의 딸이 어렸을 때 울기를 좋아하더니 왕이 희롱하여 말하기를, “너를 장차 온달에게 시집보내리라”하였다. 자라서 상부 고씨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 딸이 임금으로서 식언(食言)할 수 없다 하고 굳이 사양하고 마침내 온달의 아내가 되었다. 아마도 온달은 집이 가난하여 빌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그를 지목하여 바보 온달이라고 여겼다. 하루는 온달이 산중으로부터 느티나무 껍질을 꺾어지고 돌아오니 임금의 딸이 찾아와 보고 말하기를, “나는 바로 그대의 배필입니다”하고, 머리 장식 등을 팔아 밭과 집과 살림 그릇들을 사서 자못 부유해지고 말을 많이 길러 온달을 도와 마침내 이름이 드러나고 영광스럽게 되었다.

勸學篇

명심보감의 마지막 편으로서 권학(勸學)의 글로서 끝을 맺는다.

朱文公曰，勿謂今日不學而有來日，勿謂今年不學而有來年，日月逝矣，歲不我延，嗚呼老矣，是誰之愆。

주 문공이 말씀하셨다. 오늘 배우지 아니하고서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며, 금년에 배우지 아니하고서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해와 달은 가고, 세월은 나를 위해 더 늘어나지는 법! “아! 늙었다!”라고 탄식하면 이 누구의 허물인가?

少年易老學難成，一寸光陰不可輕，未覺池塘春草夢，階前梧葉已秋聲。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일촌 광음이라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 아직 지당(池塘)의 봄 풀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는가 싶더니 섬돌 앞의 오동나무 잎사귀는 이미 가을의 소리를 내는구나.

陶淵明詩云，盛年不重來，一日難再晨，及時當勉勵，歲月不待人。

도연명의 시에 이르기를, 성년(盛年)은 거듭 오지 아니하고, 하루도 두 번 날이 새지 않으니, 젊었을 때에 마땅히 학문에 힘쓰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나니...

荀子曰，不積跬(𨔵)步，無以至千里，不積小流，無以成江河。

순자가 말하였다. 반걸음을 쌓지 않으면 천리에 이를 방도가 없으며, 작은 물줄기를 쌓지 않으면 강하(江河)를 이룰 길이 없느니라.